



김포골드라인 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정하영 시장. /김포시청

“조합원 파업에도 김포골드라인 이상無”

정하영 김포시장, 차량기지 방문

정하영 김포시장이 22일 오전 김포골드라인 한강차량기지를 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차량기지 관제실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점검에서 정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인 김포골드라인의 철도운행상황을 점검하고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 철저와 시민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현장점검에서 김포골드라인(주) 권

형택 대표이사는 “김포골드라인은 완전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돼 현재 조합원의 파업에도 불구 열차의 운행과 검사는 전혀 이상없이 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하영 시장은 “완전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고 수준 경전철이기에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은 아직 없지만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5년내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부산시 ‘지능형 CCTV’ 등 설치

부산시가 사계절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폐장 기간에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연중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예찰 활동을 펼칠 안전요원을 해수욕장마다 고정 배치하며 희망일자리 인력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안전사고 유의 표지판과 위험지역 표지판을 보강하며 너울성 파도

와 입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방송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해운대·송정에만 배치되어있는 자격증을 갖춘 수상구조요원을 7개 모든 해수욕장에 확대 배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총 29억원을 신청기로 했다.

특히 대포해수욕장 중학생 물놀이 사고의 사례처럼 해변이 넓고 폐장 기간에 인적이 적은 해변에서는 위험지역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안내·경고 방송시스템인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시내버스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

서울시, 26일부터 5개노선 대상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두 달간 시내버스 5개 노선에서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 후면에 거치대를 설치해 자전거를 실을 수 있게 하거나, 차량 내에 자전거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버스 노선에서는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주말에는 전 시간대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버스는 양천 공영차고지~가양동을 오가는 6657번 노선 6대와 난지한강공원~북한산 구간을 운행하는 7730번 노선 3대다. 자전거 거치는 한 버스당 2대까지 가능하며, 탑승자가 직접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

버스내 반입이 가능한 노선은 162번(5대), 6513번(4대), 7612번(4대)이다. 각각 정릉~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서울대, 서대문~영등포를 오간다.

/김현정 기자

해외체류 중개업자, 대리인에 부동산거래 지시

불법 중개행위 중개업소 8곳 적발

서울시 민사단, 강남 등 4곳 조사
공인중개사·보조원 총 14명 입건
등록증 대여 등 26명은 형사입건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시킨 공인중개사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달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여행으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 8곳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거쳐 거래계약이 이뤄질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업체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7~9월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출입국 내역과 업체 거래신고 내용을 비교·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이와 별개로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6명을 형사 입건했다.

위반사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 먹기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체류 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거래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 담합으로 집값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아르헨과 상수도 기술교류 논의

코로나19에 화상회의 방식 진행
각각 양측대사관서 4개기관 참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2일 오전 8시 아르헨티나 상수도공사(Agua y Saneamientos Argentinos·AySA)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류된 상수도 기술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수도 기술 상호 교류를 위한 해외 현지 출장이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AySA 측이 먼저 화상회의를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다.

향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AySA 두 기관의 기술 교류를 상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주재하고,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장명수 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서울시

사)이 참석해 총 4개 기관이 함께했다.

회의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AySA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소개, AySA 수도시설 가상방문, 아리수 생산과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코로나19로 보류된 상수도 기술 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감염병 여파로 중단된 상수도 전문 기술인력 파견 사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AySA 측은 시의 상수원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정수처리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질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수한 서울 상수도 기술에 대한 해외도시의 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브라질, 캄보디아, 탄자니아에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해 지원해왔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현지 컨설팅은 잠시 보류됐지만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언택트 시대에 국제 기술협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국내 민간기업을 위한 수도 사업 해외 진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마장축산물시장 악취 잡아 청결환경 조성

서울시 ‘시장 환경개선 시범사업’

60년 역사의 ‘마장축산물시장’은 수도권 육류 유통량의 60%를 차지하는 서울시내 최대 육류 가공·유통 산업 중심지로, 성동구 대표 산업거점이다. 그러나 축산물 가공 과정에서 각종 부산물과 빗물에 의해 발생한 지독한 악취가 인근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촉발해 소비자들의 시장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안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없애 소비자 유입을 촉진, 도시재생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시는 ▲시장 내 도로 세척 ▲작업공간 내 친환경 EM 살포 ▲동물성 잔재물(유지) 운반·수거 방식 개선의 3대 전략을 동시에 가동한다. 시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물청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시장 바닥과 도로에 묻은 혈흔, 동물성 잔재물(유지)은 스팀 청소 차량을 동원해 매주 3차례 주기적으로 세척한다.

또 육류 가공이 이뤄지는 작업공간



마장축산물시장 내 청소장비 운영 모습. /서울시

에는 친환경 EM을 살포해 악취를 줄인다. EM 효소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수질을 정화하고 악취를 없애는 효과를 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육류 가공 후 나오는 잔재물 처리·수거 방식도 개선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3일(금)

음력: 9월 7일

수도권 날씨

4 ~ 13°C

해돋이 / 06:48 | 해질 / 17:44

연천 0/13, 동두천 1/14, 가평 1/14, 파주 0/13, 서울 4/13, 양평 3/14, 인천 6/13, 수원 6/12, 용인 6/12, 평택 3/14, 백령도 9/12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